

# 100억 투입... 광·융합산업 활성화 올인

### 광산업진흥회, 종합지원센터 구축 인재 양성·창업 활성화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해외 사무소 개설 시장 개척 지원

조용진 한국광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광·융합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새해부터 설 틈이 없다. 정부가 올해부터 광·융합업체들의 글로벌 역량과 위상을 높이기 위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만큼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제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는 데 힘을 쏟아야 할 때라는 게 조 부회장 복안이다.

◇광융합산업종합지원센터 구축하고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7일 한국광산업진흥회에 따르면 올해 사업계획도 국가전략산업으로 본격 육성되는 광산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 마련됐다.

우선, 광산업진흥회는 '광융합종합지원센터' 건설을 통해 광융합기술 진흥 전담 기관으로 지정된 뒤 광융합산업 정보망을 구축하고 맞춤형 인력 양성에 나서는 한

편, 창업 등 사업화를 지원하는 등 광융합산업 활성화에 주력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사업계획에는 정부가 수립하는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에 광주·전남 뿐 아니라 전국 2000여개 광·융합 관련 기업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등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광융합산업기술 지원법 시행에 따라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종합발전계획에는 광융합기술 진흥 정책 발전방향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업체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 방안 등이 담겼다.

광산업진흥회는 또 베트남에도 해외 직영 사무소를 개설, 광산업체의 해외 진출을 돕고 다양한 수출상담회 등을 열어 기업들의 시장 개척을 지원키로 했다. 광산

업진흥회는 지난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해외 직영사무소를 개설, 국내 18개 광동신 부품업체와 광의료부품업체들의 제품을 전시, 소개하고 있다. 광산업진흥회는 베트남 과학기술부 기술혁신센터와 협의중인 만큼 올 상반기에는 해외 사무소 개설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흥회는 올해 예산도 처음으로 100억원을 확보, 성장세가 둔화된 광융합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는 8월 국제광융합비즈니스페어를 열어 세계 광융합시장을 선도하는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진흥회는 이의 차세대 ICT 융합 및 에너지효율화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광주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원 사업, 광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등도 추진한다.

◇광산업진흥회, 지난해 성과는=광산업진흥회는 지난해 광·융합산업체들의 생태계 기반을 구축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 일자리 창출에 선도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진흥회는 지난해 조직 개편 등을 통해 기업 지원과 시장 진출을 위한 전문인력을 두 배 이상 늘리고 OLED, 광센서, 광의료, 광학소프트웨어 분야 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해 지원하는 한편, 국내외 마케팅 지원사업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또 국내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와 국제광융합엑스포, 광융합산업로드쇼 등을 개최,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바이어를 발굴하고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해 제공했다. 일본, 중국, 미국, 독일 등 해외 유명 전시회에 공동관을 조성해 전국 260여개사의 수출 마케팅 지원 활동도 펼쳐 1억1142만달러에 이르는 수출 계약을 올리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조용진 한국광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올해부터 광산업이 국가전략산업으로 본격 육성되는 만큼 광주·전남 뿐 아니라 전국 광융합산업 육성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37.10 (+26.85)	↑ 금리(국고채 3년) 1.81 (+0.01)
↑ 코스닥 672.84 (+8.35)	↓ 환율(USD) 1118.60 (-5.90)



## 광주은행 설 中 小 企 資 金 3000 億 편 成

### 年 1.2% 금리 우대 ... 3월 8일까지 대출금 만기연장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설을 앞두고 경영자금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지원하기 위해 '설 중소기업 특별자금대출'로 신규자금 3000억원을 편성해 7일부터 3월 8일까지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3000억원의 만기연장자금을 함께 편성해 이 기간 중 기일이 도래한 대출금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주가 원할 경우 만기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설 특별자금대출의 업체당 지원 한도는 최고 30억원 이내로, 금리는 산

출금리 대비 최대 1.2%를 우대해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광주은행은 지역의 어려운 경제 현안을 살펴 민생안정 대책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노무비나 체불임금 지급, 원자재 구입자금, 긴급결제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설을 앞두고 빠르게 지원하기로 했다.

작년 추석에도 특별자금을 지원한 광주은행은 신규대출 2,156억원, 만기연장 4,884억원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준 바 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 KEB하나은행 광주 소상공인 금융지원

### 신보재단과 협약 ... 75억원 보증 제공

KEB하나은행은 최근 광주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고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금융 지원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하나은행이 협약에 따라 광주신보에 5억원을 출연하면 신보는 이를 재원으로 지

역 소상공인 등에게 기업당 2억원 한도로 75억원 규모로 보증을 제공한다. 신보의 보증을 받으면 그만큼 은행에서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다.

희망 기업은 광주지역 하나은행 11개 지점이나 광주신보 영업점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휴테크' 권장 ... 광주 청년들이 가고 싶은 직장 '지오씨'

### 광케이블 제조업체... 지역 일하고 싶은 기업 톱 12 선정 등

'휴(休)테크' 권장에 골프연습장비 지원해주고 쉬는 시간도 근무시간에 넣어 출근하는 게 즐거운 회사로...

지역 중소기업이 정부와 자치단체가 선정하는 '청년들이 가고싶어하는 직장'에 잇따라 선정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7일 광주테크노파크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열린 '2018 희망이음 프로젝트' 시상식에서 광주지역 광케이블 제조업체 지오씨를 '우리지역 일하고 싶은 기업 톱(TOP) 12'에 선정했다.

산자부는 광주테크노파크를 비롯, 전국 테크노파크 추천을 받은 업체들을 대상으

로 심사를 거쳐 광주의 지오씨 등 12개 기업을 선정했다.

'희망이음 프로젝트'는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청년인재와 지역 우수기업의 교류를 통해 지역기업의 부정적 인식과 취업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오씨 등은 희망이음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한 점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앞서, 지오씨는 고용노동부의 '2019년 청년친화강소기업'에도 뽑혔다. 고용부는 임금, 고용안정, 워라밸(일·삶의 균형) 등 청년들의 희망 요건을 반영해 광주·전남 지역 41곳을 포함해 전국 1127곳을 선정

한 바 있다.

지오씨는 일·생활 균형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선정됐다.

지오씨의 경우 연초에 계획서를 미리 받아 직원들이 법정휴가(년월차)를 갈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자기계발비의 경우 전액 지원하고 일정 직급이 되면 업무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골프연습장비도 직접 끊어준다. 생산직 직원들에 대해서는 쉬는 시간과 식사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시켜 급여를 제공해 '출근하고 싶은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는 게 회사 설명이다. 광주시도 '명품 강소기업' 육성사업 대상업체로 지오씨를 선정했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광주경영자총협회 2년 연속 청년내일채움공제 기관 선정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최상준)는 지난해 이어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 기관으로 선정돼 사업추진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 대상으로,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의 자생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기업·정부가 공제금을 적립해 2년 또는 3년간 근속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2년형 1600만원(+이자), 3년형 3000만원(+이자)의 만기공제금을 제공한다. 참여 기업에게는 2년형(100만원), 3년형(150만원)의 기업지원금을 지원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중견기업 업종 전환 쉬워진다

### 산자부 7월부터 시행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비상장 중견기업이 업종 전환을 위해 다른 기업과 주식교환, 합병, 영업양수도 등을 추진할 때 필요한 절차와 요건을 간소화하는 내용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해당 법은 현재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사업전환 특례를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로, 사업 영역을 바꾸거나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중견기업의 사업전환이 쉬워질 전망이다.

현재 상법은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지만, 중견기업법은 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통한 사업전환을 위해

파트너 기업과 주식교환을 추진할 경우 여기에 필요한 자기주식 취득을 가능하게 한다.

기업이 교환하고자 하는 주식 규모가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내면 주주총회 승인 대신 이사회 의결만으로 취득할 수 있다. 합병이나 영업양수도를 이행할 때 채권자 이익제기 기간,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한, 합병계약서 공시 기일, 간이 합병 등에 있어서도 상법보다 완화된 요건을 적용한다. 이 같은 간소화 절차를 적용받고자 하는 중견기업은 사업전환 계획을 세운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되며, 대상 중견기업의 규모와 사업 계획 승인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오는 7월 초부터 시행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